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전략 연구 - 삽입서사를 중심으로

이 현 영*

요약

본 논문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주요 삽입서사를 검토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속뜻을 통해 이청준의 창작기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에 영향을 받은 이청준이 단순히 논픽션을 인용하였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기법을 보여주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2장은 논픽션과 소설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황장로 사연>이 이청준에 의해 '고의적 변조란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의 경우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나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비지정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이 소설 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한센인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작가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사전략으로 표현해 내는지 검토할 것이다.

본고의 이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첫째, 이 소설의 삽입서사는 작가가 독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읽은 일련의 과정들을 이청준 특유의 서사적 추론과 서사 전략으로 구사한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 둘째, 이청준은 정치적 메커니즘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 온 『당신들의 천국』 그 이면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심층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삽입 서사를 통해 보여준 점 셋째, 자신의 의도를 은폐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이청준의 창작기

* 단국대 자유교양대학 강사

법이 『당신들의 천국』 또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소록도의 반란, 서사 전략, 이규태

목차

1. 서론
2. 확정적 의미에서의 단어 변조
3. 불확정적 의미에서의 여성
4. 나환의 서사에서 작가의 역할
5.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주요 삽입서사를 검토하여 그 이면에 숨겨진 속뜻을 통해 이청준의 창작기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당신들의 천국』은¹⁾ 이미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대체로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룬 논의와²⁾ 서사구조 및 서사방법을 탐구한 논의가³⁾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서 본 논문의 방향성에

1)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2) 이러한 주제를 다룬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김현,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1999; 서영채, 「과잉윤리와 몰윤리 사이의 문학: 이청준의 '참기름 사건'과 『당신들의 천국』」, 『한국근대문학연구』 18집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7; 오현석, 「미감아,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폭력」, 『한국문학논총』 제91집, 한국문학회, 2022; 한순미, 「분홍빛 목소리」, 『한국민족문화』 6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3) 마희정,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구조분석」, 『현대소설연구』 21호, 현대소설연구학회, 2004; 이소연, 「괴물-되기의 서사 실험」,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임환모, 「이청준 소설의 알레고리적 욕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정미숙, 「이청준 소설의 '정동' 연구」, 『비평과 이론』 제27권 1호, 2022; 주지영, 「초점화자의 다변화에 따른 노동, 연대, 환대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제17권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도움을 준 것은 우찬제와 이미영의 논의이다. 우찬제는 『당신들의 천국』 해설에서 정치적인 서사 층위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서사를 이 소설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 연구자는 정치 이전에 삶의 근본 조건 및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어떻게 자유로운 일반 의사로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⁴⁾ 여기서 본고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서사란 대목에 주목했는데 이는 『당신들의 천국』이 특정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삶 자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엇인가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의구심은 본 연구자가 이청준의 작품을 연구해 오는 과정에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고민해 온 것과 관련된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소설 내에 어떠한 은밀한 단서를 숨겨두고 독자들이 추리하게끔 만드는 그만의 서사적 장치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며 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사적 장치’라 함은 소설 속에 은닉된 사건, 혹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건,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단어해독 등인데 『당신들의 천국』의 경우 삽입서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고는 이 텍스트의 삽입서사가 파편적이고 비유적인 대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분석하기 쉽지 않다고⁵⁾ 판단하던 차에 이청준이 이규태 기자의 「소록도의 반란」을⁶⁾ 읽고 창작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 본문에 일부 논픽션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를 비교분석해 보기로 했다.⁷⁾ 왜냐하면 『당신들의 천국』만 분석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

4) 우찬제, 「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475면.

5) 그동안 삽입서사의 경우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소설 전반에 내재된 등장인물의 특질을 보다 섬세하고 비유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6) 이규태, 「소록도의 반란」, 《사상계》, 1966.

7) 주지하다시피 「소록도의 반란」은 1966년 《사상계》에 게재된 논픽션으로 당시 이 잡지사에 근무하던 이청준이 이 텍스트를 읽고 『당신들의 천국』에 대한 집필을 구상했다고 한다. 이후

이 「소록도의 반란」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영이 분석한 바 있다. 위 연구는 『당신들의 천국』이 논픽션과의 상호 텍스트적 관계설정을 통해 ‘해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⁸⁾ 점에서 본 논문의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미영 연구자가 지적한 『당신들의 천국』이 외부의 대상-소록도와 조창원의 이야기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대상으로 하여 재현하고 있는 「소록도의 반란」 역시 해석하고자 한 것이라고⁹⁾ 언급한 대목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다. 본 논문은 위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도 텍스트와 시대적 현실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한 이미영의 논의와는 달리 텍스트 내 공통적으로 제시된 삽입서사를 중심으로 문제 의식을 풀어나가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을 일부 그대로 인용한 이청준의 의도는 굳이 외적 측면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서사적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요컨대 똑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소설이란 장르의 특수한 제재와 이미지들이 텍스트 내 또 다른 맥락적 의미로 가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텍스트에 제시된 삽입서사를 중심에 두고 미시적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당신들의 천국』의 삽입서사에 서술된 파편적인 장면들만으로 과연 이청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게다가 〈황장로의 과거 사연〉과 같은 삽입서사의 경우 논픽션 서사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설화 되었을 때는 각색과 변형, 허구화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본고 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유독 삽입서사에 집중한 것은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삽입서사

작가는 본격적으로 1974년부터 75년까지 〈신동아〉에 연재하다 1976년 단행본으로 출간하게 된다.

8) 이미영, 『당신들의 천국』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9) 이미영, 앞의 논문, 43면.

들이 단순히 사건의 주제와 인물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한 표층적인 층위에 머무르기보다 이 ‘삽입서사’ 구조 자체가 작가의식을 반영한 극적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삽입서사를 구조적 전략 차원에서 독해할 경우 보다 심층적 의미항들이 구체화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삽입서사는 이규태의 논픽션과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황장로의 과거 사연> 및 <축구경기 시합>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 가운데 한민의 단편소설 「귀향」에 수록된 <이상욱의 과거 사연> 및 여류 화가의 <그림 속 소녀> 등 총 4편이다. 우선 2장은 논픽션과 소설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황장로 사연>이 이청준에 의해 ‘고의적 변조’란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의 경우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나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비지정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이 소설 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한센인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작가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사전략으로 표현해 내는지 검토할 것이다.

2. 확정적 의미에서의 단어 변조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황장로의 사연>은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과 『당신들의 천국』에 공통적으로 서술된 삽입서사로 서술 과정에서 미세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먼저 발표된 「소록도의 반란」은 논픽션 장르이며 소설인 『당신들의 천국』과는 달리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게다가 「소록도의 반란」을 쓴 이규태 직업이 ‘기자’라는 점은 이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다. 이 텍스트에서 서술된 장면들은 독자들에게 감정이입되어 한센인의 착취

와 그들이 폭력적인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요청한다. 특히 평론가 김현이 ‘황장로의 사연은 너무 가슴이 아파 언제나 넘기고 싶은 곳’이라고¹⁰⁾ 언급할 정도로 「소록도의 반란」과 『당신들의 천국』에서 중요한 삽입서사라 할 수 있다. 가령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읽는 독자들이 황장로의 삽입서사를 읽었을 때 소설 장르 특성상 허구라고 생각하였다가 그 이전에 발표된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에서 발견하게 되면 논픽션의 장르를 떠올리며 생각을 정정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이 황장로의 사연을 더욱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삽입서사가 황장로의 사연이라고 보기에는 이규태가 제시한 육십갑자와 유추할 만한 나이대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소록도의 반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이 환자촌의 장로들은 모두가 연만했다. 六〇대의 할아버지도 있었다. (중략) 그 중 가장 매서운 눈매의 한 장로가 눈초리를 씩씩하게 조리더니 손가락이 없는 손으로 대머리를 긁적어렸다. (중략) 눈이 매서운 장로가 일어선다. 고개를四五도 돌린 다음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제 五교회의 장로 황시백이 말합니다.」 (중략) 조원장이 격한 흥분을 가라앉히려 고 바다에 눈을 돌리고 있는 동안 황장로는 다시 일어서 고개를四五도 돌렸다.¹¹⁾(밑줄 인용자)

(2) 병자흉년 알겠지. 말로 들어서도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은 경상도 소백산에 가 화전 가꾸면 살 수 있다 해서 땅과 집을 버리고 수 천 수 만 명이 겨우내 떼 지어 내려 왔었어. 묘향산 기슭 희천(熙天) 두메에서 한 뼨장이의 꼬마둥이로 일해 왔던 내가…….¹²⁾(밑줄 인용자)

10) 김현,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권오룡 엮음, 앞의 책. 232면.

11) 이규태, 「소록도의 반란」, 앞의 책. 340-341면.

12) _____, 앞의 책. 346-347면.

(3) 그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옳아 옳아 내가 문둥이 틈에서 문둥인 줄 모르고 용맹을 떨치다가 문둥이가 된 대목까지였지? (중략) 황장로는 장로답지 않게 을시년스리 웃더니만 「그 각시가 말이야. 날더러 불쌍하다고 하루밤 재워주겠다지 않아. 내가 문둥이라고 말하니까 도망치길래, 웃으며 뒤따라 그 여자의 가장 그 여자다운 곳을 골라가며 피를 보게 했어.」(중략) 「꼭 三〇년이구만. 三〇년전에 일본인 원장 「주방」을 때려 죽일 때도 꼭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말이야. 늙으니까 맘이 약해지는 건 인 지상정인가봐.」¹³⁾(밑줄 인용자)

인용문(1)에서 보다시피 이규태의 논픽션에서 황장로의 나이는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며 ‘눈이 매서운’이란 구절만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인용문 (2)에서 언급된 육십갑자인 ‘병자년’으로 년도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876년과 1936년이 해당된다. 우선 1876년에 황장로가 꼬마둥이라는 단어에 의존하여 10살 전후로 가정하면 오마도 간척사업이 일어난 시기가 1962년, 이 논픽션이 게재된 시기가 1966년으로 전후 몇 년을 감안하더라도 황장로의 나이가 90세가 넘으므로 시기상 맞지 않다. 특히 인용문(1)에서 ‘이 환자촌의 장로들은 모두가 연만했다. 60대 할아버지도 있었다.’라는 대목을 통해 가장 나이대가 많은 사람이 60대임을 짐작해 볼 때 황장로를 90세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병자년을 1936년으로 추측하자면 꼬마둥이를 10세 전후로 보았을 때 황장로를 40대 중년 남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용문(3)에서 ‘30년 전에 일본인 원장을 때려죽일 때도 꼭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대목을 통해 그의 예상 나이대가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본고는 황장로의 사연에 관한 사실여부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병자년’이란 단어는 서술자의 표기 실수거나 혹은 「소록도의 반란」이 실린 《사상계》〈편집후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글가운데서 조창원씨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13) _____, 앞의 책. 356-357면.

假名이다'¹⁴⁾란 대목을 통해 이 사연이 황장로의 사연이 아닐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왜냐하면 '가명' 자체가 사실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황시백의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본고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논픽션이 지니고 있는 장르의 특성상 '사실'의 가치가 중요시된다는 점, 그리고 이청준이 『당신들의 천국』에서 이 대목을 인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은 『당신들의 천국』이 「소록도의 반란」의 황시백 사연과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4) 치료소를 들렀다가 황희백(黃希帛) 노인이라도 만나볼까 생각했다. 장로회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다면 황희백 노인이 가장 적당했다. 올해 예순이 넘은 중앙리 장로였다. 섬 안 5천여 원생 가운데 그 나름대로 한 맺힌 내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섬의 비극은 이미 이곳을 찾아와 살다 죽어갔거나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수에나 맞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황희백 노인 예겐 남달리 엄청난 내력들이 숨겨져 있었다. 병을 얻고 섬에 들어와서 그가 오늘날까지 겪은 일들에는 유독히도 끔찍스런 사연들이 많았다. 전설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섬의 슬픈 역사의 표상이었다. 살아 있는 신화의 주인공이었다.¹⁵⁾(밑줄 인용자)

(5) “글쎄, 어디서 밀려와서 어디로 밀려가는지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떼거리였지. 그 병자년 흉년 때 물밀 듯 내리다친 북쪽 사람들 말야.” (중략)

“원장도 아마 병자년 흉년이라면 얘길 들어 알고 있겠지만, 그거 참 굉장한 난리였지.”

그 병자년 흉년 때 황 장로는 평안도 묘향산 근처의 어느 산골 마을

14) 이규태, 앞의 책, 362면.

15)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102면.

변두리에서, 땀장이 일을 하는 늙은 할아버지와 그 땀장이 일을 거드는 꼬마둥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¹⁶⁾ (밑줄 인용자)

인용문(4)처럼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황시백이 ‘황희백’으로 이름이 변경된 점 외에도 나이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삶의 내력은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작가가 황장로의 과거를 ‘병자년’으로 지칭한 대목에 대해서 이규태의 것을 그대로 인용함과 동시에 그의 나이가 ‘올해 예순이 넘었다’란 구절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병자년’과 ‘올해 예순이’ 맞지 않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황장로의 시연이 언급된 ‘병자년’은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근접한 해인 1876년과 1936년 모두 시차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청준이 말한 ‘예순이 넘은’ 나이대는 계산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과연 이청준이 이규태의 언급한 연호의 표기와 황장로 나이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현실상 작가의 말을 들어볼 수 없기에 명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기존 창작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인간인 2』에서 육십갑자에 해당하는 ‘병인년’ 표기를 소설 속 트릭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¹⁷⁾ 그 외에도 작가는 본문에 ‘이듬해 봄’을 두 번 반복함

16) ____,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233면.

17) 『인간인 2』(1991)는 『당신들의 천국』보다 늦게 발표되었고 무엇보다 아래 제시하고자 하는 대목이 『인간인』의 구조적 상동성을 분석한 연속적 연구의 한 파트이긴 하나 본고가 주장하는 근거에 사례가 되므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인 2』에서 송화가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던 시기가 병인년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60년마다 되돌아오는 병인년의 경우 이 소설이 전개되는 시점과 가장 근접한 해는 1926년과 1986년이다. 그런데 소설 후반부의 시간이 1980년임을 감안할 때 소설상의 병인년은 1926년일 확률이 가장 크다. 난정이 장손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시점은 1975년, 난정이 송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송화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대목에서 4번째 보내는 어머니의 기일(이청준, 『인간인 2』, 열림원, 1999. 125면)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난정이 말하고 있는 시연의 시차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줄고,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조와 전략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8. 109-112면 일부 요약) 이를 통해 본고는 소설 속 ‘년도

으로써 두 해의 걸친 시간적 흐름을 마치 한 해가 지나간 것인 양 독자들을 헛갈리게 만드는 전략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이청준의 ‘고의적 변조’에¹⁸⁾ 대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이점을 감안하여 인용문(5)에서 ‘병자년’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이렇게 명시한 작가의 의도가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황장로의 사연’은 개인보다 집단의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데 이를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삼입서사의 내적 측면은 스토리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한다. 『당신들의 천국』에서 황장로의 사연은 한센병을 앓게 된 과정과 한센인이 되어 살인자가 된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6) 병자년 흉년 때 평안도 묘향산 근처 어느 산골 마을 땀장이 일을 하는 늙은 할아버지와 그 땀장이 일을 거드는 꼬마둥이 시절 보냄→ 유랑민들에 의해 어머니 강간당한 후 시체로 발견→ 땀장이 노인과 소년은 남쪽으로 길을 떠남→ 늙은 노인은 추위에 얼어 죽음→ 혼자 길을 떠난 소년이 어머니 또래의 중년 아낙과 함께 길동무가 됨→ 밤이 되면 성적인 행동 요구→ 아낙과 함께 다른 사내의 패거리와 만나 지내기 시작→ 도둑질 및 온갖 악한 행위 동참→ 사내들의 패거리가 문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 곁을 떠나 경상도 봉화에 도착.¹⁹⁾

(7) 2,3년 동안 봉화 땅 한 주막집에서 주둥 노릇 함→ 주막집 주인 사

표기가 작가의 실수가 아닌 고의적 변조임을 살펴볼 수 있다.

18) 이러한 ‘고의적 변조’는 이청준 병상 일기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8월10일 일기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의 소록도 동네들 위치가 다른 것, 「이상한 선물」에서 김 선생이 안 선생으로 바뀐 것 등은 실수 착오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의 현실 오해를 야기시키지 않으려는 고의적 변조다”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이청준, 「저 숲을 영원히 볼 수는 없다.이청준 병상 일기, 『문학과 사회』 제 23집, 문학과 지성사, 2010, 402면) 이 대목은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19)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233-239면 일부요약.

내가 주모를 밤색시감으로 길손에게 내어주고 도둑질을 함→ 소년도 동참→ 손님에게 들키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품속에서 부엌칼을 내보임→ 어느 날 주인 사내가 집을 비운 사이 색시가 소년에게 잠자리를 제안→ 소년은 그 순간 과거 아낙을 떠올림→ 색시에게 자신의 자주색 반점을 보여주며 문둥병을 앓고 있음을 말함→ 도망치는 색시를 쫓아가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를 오려 살해.²⁰⁾

위 인용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삽입서사인 황장로의 사연에서는 문둥병을 앓기 전후의 소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인용문(6)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 또래 아낙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인용문(7)은 문둥병을 얻고 나서는 오히려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모습을 한 소년이다. 여기서 한센병은 단순히 질병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 요컨대 황장로의 삽입서사는 현실에서 지배자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피해자가 아니라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 모습으로 둔갑한다.

이러한 내적 측면은 이제 ‘황장로 사연’ 그 자체보다 이 이야기가 갖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외적 측면과도 연관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황장로의 과거를 끄집어 낼 때마다 섬에 어떠한 반란이 일어난다는 대목이 이 규태 논픽션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이 삽입서사를 통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삽입서사는 이 이야기가 갖는 힘이 소록도 한센인들의 반란을 추종하는데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 나환자인 그가 권력하에 처절하게 지배 받은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삽입서사 속에서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강자’라는 점이다.²¹⁾ 그렇다면 황장로의 삽

20) _____,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239-241면 일부요약.

21) 김윤식은 「가해자의 얼굴」의 해석을 두고 헤겔적 변증법의 틀에 평생을 두고 통달한 작가가

입서사는 이제 한센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른바 ‘트리거’가 되는 셈이다. 송기섭에 따르면 소설에서 실제 작가와 독자의 태도는 거의 한 등장인물에 제한되어 집중되는데 초점이 모아진 작중인물은 어떤 의미를 수반한다고²²⁾ 보았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황장로의 이야기는 사실여부를 떠나 ‘약자에서 강자로 바뀔 수 있는 명분과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들만의 신화, 그리고 황장로의 사연은 황희백이란 개인의 것이 아닌 한센인을 역동적으로 추동시킬 수 있는 공동의 이야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용문 (4)을 읽었을 때 우리는 ‘우리 섬 문둥이들 모두의 이야기이며 모두들 무서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섬으로 왔고 섬으로 와서도 또 못지않게 무서운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²³⁾ 대목이 ‘그들만의 신화’로 비유되고 황장로가 ‘신화의 주인공’란 구절은 단순히 비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신화의 특성상 사실여부보다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이 목적임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따라서 한센인들이 침묵당한 과거의 압박아래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한민의 소설 「귀향」이라면 그들이 깊은 나라의 생존자이자 가해자의 흔적에서 추동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황장로의 과거 사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청준임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어떤 자리와 계기를 만나면 돌연 가해자로 돌변하는 것인가를 이청준식만의 심리적 독법으로 풀어나간다고 본 것이다.(김윤식, 「미백(米帛)의 사상 또는 이청준의 글쓰기의 기원에 대하여」, 권오룡 엮음, 앞의 책. 119면) 본고는 위 견해에서 지적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이 『당신들의 천국』에서 또한 통용되며 그 ‘어떤 자리와 계기’의 지점이 바로 〈황장로 사연〉 삽입서사에 감춰져 있다고 보았다.

22) 송기섭, 「서사물에서 작중인물의 정체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7. 189면.

23)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242면.

3. 불확정적 의미에서의 여성

이번 장에서는 『당신들의 천국』에서 서술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등장인물의 사회적 존재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표된 「소록도의 반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논픽션에는 조창원 원장의 오마도 간척 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사건사고들, 나환자들의 삶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것 외에도 10대라는 꽃다운 나이에 나병에 걸려 섬에 들어온 ‘아가타 자매’와 흑인 혼혈 ‘리자 자매’ 등 여성 인물에 대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반해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삽입서사인 〈황장로 과거 사연〉과 〈귀향〉의 이상욱 과거 사연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흥미롭게도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소년’²⁴⁾이다. 추측하건대 이청준이 이규태 기자의 르포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임을 감안해보자면 이러한 캐릭터의 차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여성’의 발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명백히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마치 생략은 했으나 그 흔적을 주변에 남겨놓음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의 머릿속에서만 그려볼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서사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탁번의 말을 빌리자면 글을 쓸 때 작가는 행동이나 사진, 어휘 등을 선택하는데 이때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되지 않은 무엇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이때 선택된 것은 지정 요소, 선택되지 않은 것은 비지정 요소라 하는데 독자는 일상적 삶과 예술의 경험을 통해 비지정 요소를 유추해 나가게

24) 롤랑 바르트는 고유명사가 작중인물의 이름을 중심으로 서사의 여러 요소들이 통합되어 ‘작중인물을 성격화’한다고 보았다.(송기섭, 앞의 논문, 183면) 그런데 이청준이 두 삽입서사에서 황희백 및 이상욱 이름 대신 ‘소년’이라 지칭한 것은 삽입서사 내에서 ‘소년’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장치라 할 수 있겠다.

되며 이를 서사적 추론이라 말한다.²⁵⁾ 이 ‘비지정 요소’에 초점을 맞춰 삼입서사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어머니’에 관한 서사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먼저 「소록도의 반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소록도의 미감아들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처해져 있는 위치 때문에 그들 또한 나병 환자들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감아들은 신체적 발병이 아닌 인식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흑인 혼혈아 리자 자매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8) 비가 사납게 오는 어느 날 흑인 혼혈아 리자가 있는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길래 달려가 보았다. 리자 자매가 맞붙들고 구슬피 울고 있었다. 그들 발밑에는 이 인형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인형 얼굴이며 손발에는 새까맣게 감장으로 칠해져 있었다. 여교사는 당장 눈치를 챘다. 미국에서 선물은 이 인형에 대한 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중략)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감장칠한 인형이 누더기가 된 채 금지구역인 완충지대에 버려져 있었다. 그것도 뻘한 일이었다. 리자가 받은 모욕과 자신의 가없는 처지를 이 인형을 갈기갈기 찢음으로써 풀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오는 어둠을 타고 완충지대 가까이 달려가 아무도 줍지 못하게끔 힘껏 내던졌을 것이다.²⁶⁾

인용문(8)은 인형 얼굴에 검정칠을 하여 또래 미감아들이 리자 자매를 놀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피부색 때문인데 동심의 세계조차도 피부색에 따른 우위관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해 리자 자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요인은 놀랍게도 ‘미감아’가 아닌 ‘흑인 어머니’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흑인 혼혈 여성들이 ‘약자 중에서도 약자’로 지

25)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41면.

26) 이규태, 「소록도의 반란」, 앞의 책. 338면.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편 『당신들의 천국』의 삽입서사 경우에도 ‘어머니’ 혹은 ‘어머니’로 연상되는 인물들이 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여성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여성은 성적인 요소로 연관되는데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등장한다는 점 둘째, 어머니의 이미지가 기존의 모성을 상징하는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9) 어머니가 유랑민 떼에게 성적 유린당한 후 살해당함→ 어머니 또래 아낙에게 성적 요구를 받음→ 아낙과 어울리던 무리들이 문둥이들임→ 주막집 색시가 성적 제안을 할 때 과거 아낙이 생각남→ 여성을 상징하는 부위를 도려내고 살해→ 눈뜨고 죽은 색시를 보며 과거 어머니를 떠올림

인용문(9)에서 보다시피 황장로 기억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와 ‘어머니 또래의 아낙’, 그리고 ‘주막집 색시’다. ‘어머니’가 유랑민에 의해 유린당해 살해된 희생자라면 ‘어머니 또래의 아낙’은 소년을 유린했던 ‘악녀’로 비유할 수 있다. 황장로에게 살해당한 ‘주막 색시’의 경우 ‘피해자’이자 소년을 성적으로 유혹한 ‘악녀’의 경계선상에 놓인 인물이다. 여기서 그가 벌인 살인은 ‘아낙’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소년 시절, 하반신이 벌거벗긴 채 죽어 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도 이어진다. 그렇다면 소년에게 ‘어머니’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존재로 문둥병을 앓게 만든 분노의 대상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어머니처럼 성적 피해자가 된 동일성을 지닌다. ‘어머니’와 성적 욕구의 연관성을 로지 잭슨의 ‘환상성’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환상’은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결국 소년의 분노는 아낙을 연상시킨 색

시를 향하게 되어 그녀의 여성을 상징하는 신체 부위를 훼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살해한 색시 얼굴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그런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그 또한 피해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욱의 삽입서사에서는 상욱의 어머니 모습보다 젊은 시절 지영숙이 좀 더 부각된다. 상욱은 어린 시절, 부모 곁을 떠나 육지에서 성장하는데 그의 부모님 이순구와 지영숙에 관한 사연은 한민 소설에서 얼핏 등장할 뿐, 현재 시점에서 남편과 아이를 잃은 그녀의 존재는 생략되어 있다. 본고는 이청준의 소설에서 비록 여성의 목소리가 작거나 아예 서술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녀들과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행동묘사와 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상욱의 내력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그의 어머니의 삶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지영숙은 이순구를 사랑하여 아이를 낳은 후 그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들을 육지로 내보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배신한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욱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남편을 둔 여자이자 오마도 간척사업이 멈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들의²⁹⁾ 어머니였

27) 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8면.

28) 이 외에도 어머니를 따라 이 곳에 와서 간호사가 된 그림 속 소녀, 누이를 따라 이 섬에 들어온 윤해원, 미감아 출신임을 숨기고 보육원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서미연 등 환한자 가족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청준은 정작 나병에 걸린 당사자들은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족들의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9) 상욱의 탈출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섬사람들에게 행해진 배반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 상욱은 황장로를 찾아가 아버지의 사연을 주기적으로 들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상욱이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배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서를 바라기커녕 노인의 입을 통해 보다 분명한 사내의 배반을 듣고 싶었고 그 배반에 대한 노인의 단죄와 저주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170면)란 대목에서 황장로 및 원생들에게 반발심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둘째, 그 배반행위를 자신의 탈출 사건으로 행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상욱의 탈출은 윤해원과 서미연의 결혼이 파탄 지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오마도 개

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영숙은 이 섬에서 그 누구보다 힘든 여건에 놓인 인물이었음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볼프강 이저는 겉으로 사소하게 보이는 장면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 대화에서 과생되는 빈틈, 이것이 독자로 하여금 빈틈을 투사로 채우도록 자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독자는 사건에 끌려들어가게 되며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의미를 부과하도록 만들어진다고 보았는데³⁰⁾ 이를 소설에 대입시켜 보자면 작가는 ‘어머니로서의 지영숙’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욱 ‘약자’임을 강조할 수 있는 서사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비록 소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성인이 되어 섬으로 돌아온 이상욱의 행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상욱이 자신과 동류의식을 지닌 서미연의 고백을 듣고도 모른 척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부모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서사를 만드는 일이 곧 선택과 배열의 과정이라고 볼 때 이청준은 자신의 글에서 생략된 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창작 기법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독자들은 소설에서 ‘서술되지 않은 것’을 통해 여성인물들의 행동을 유추해 봄으로써 작가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보여주려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의 능동적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는 ‘서술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을 최대치로 끌어들이어 작품의 이해도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척 사업 또한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다. 셋째, 3부에서 상욱이 조원장에게 쓴 편지를 통해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5년전 쓴 글에서 상욱은 ‘섬의 파탄을 갈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쓴 바 있는데 이 대목이야말로 그가 이 섬과 섬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줄고, 앞의 논문. 87-88면)

30) 볼프강 이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차봉희 엮음,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236면.

4. 나환의 서사에서 작가의 역할

마지막 장에서는 한센인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작가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몇 가지 삽입서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축구경기 시합>과 여류 화가의 <그림 속 소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축구경기 시합> 삽입서사는 이규태 기자의 「소록도의 반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장면으로 이청준 소설에서 편집 없이 그대로 인용되기도 했다.

(10) 선수들이 불을 따라 몰려가면 라인 근처에 서 있던 관중들은 물이나 끼얹은 듯 도망을 치곤 했다. 빨간 유니폼을 응원하는 관중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야유하는 사람도 없었다. …(중략)… 관중들은 놀랐다. 이미 게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 환자들을 두고 어떤 사람이 어느 만큼 더 성자적인 시련을 감당해내느냐를 보고 있는 관중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무심하던 관중은 빨간 유니폼에 환성과 박수를 보냈다. 몇몇 여학생은 돌아서서 울기까지 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장교의 염원이 저토록 간절할 수 있는가.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 《사상계》, 1966.10. 일부 인용³¹⁾

(11) 여류 화가는 섬을 찾아와서 한 가없는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이 섬으로 들어와 세상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를 섬으로 떠나보낸 소녀는 두고두고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 얼마 후 그녀는 간호사가 되어 자신도 어머니를 따라 섬으로 들어왔다. …(중략)… 화가는 소녀를 만나고 나서 이내 섬을 떠나갔다. 화가는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이나 소녀는 때때로 소녀를 생각했다. …(중략)… 화가의 개인전이 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눈동자에서 아름답

31)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150-151면.

다운 섬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소녀와 섬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름다운 소녀여! 사랑스런 소녀여! 그리고 소녀의 섬이여! 그들에게 섬이 꿈처럼 아름다웠다.³²⁾

이 짧은 에피소드 두 편은 한센인들과 소록도에 대한 섬 밖 외부인들의 인식이 비유적으로 드러나 있다.³³⁾ 섬 밖 외부인들은 소록도에서 살아가는 나환자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원장과 소녀를 통해 바라보고 심지어 감동을 느끼기까지 한다. 예컨대 인용문(10)의 〈축구시합〉 속 관중들은 나환자 선수들이 자신들 곁에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한다. 정작 그들의 박수와 환호는 나환자 선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조원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가의 서술적 특징상 구태여 〈축구 경기 시합〉을 이규태 기자의 논픽션임을 명시해가면서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 순히 조백현의 실제 인물인 조창원 원장의 헌신적인 노고와 신념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본고는 ‘성자적인 시련을 감당해 내느냐를 보고 있는 관중’이란 대목에 주목하였는데 관객 혹은 글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의 시선에서 한센인에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대해서다. 그렇다면 이청준은 논픽션의 한 장면을 인용하지만 일정한 관련성을 의미하기보다 맥락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속 소녀〉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인용문(11)에서와

32) 이청준, 앞의 책, 24면.

33) 이청준은 작가노트에서 ‘소록도는 차라리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먼 낙원, 아름다운 꿈의 섬이기조차 했습니다. 그 섬과 섬사람들이 감내해온 기나긴 가난과 슬픈 배반의 역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 겨울 제가 원장님을 찾아뵈러 갔을 때도 소록도는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기만 했지요.’라는 언급한 부분이 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앞의 책, 441면) 이 대목은 섬 밖 외부인들의 인식에 대해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같이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의 시선이 개입된 것인데 이마저도 섬을 ‘이내’ 떠났다가 이십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은 모습을 그린 점을 말하고 있다. 이는 소녀의 진짜 민낯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화가의 머릿속에 그려진 소녀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관람객들은 화가의 스토리텔링 된 ‘화폭의 소녀’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 대목이야말로 나환자들의 글을 쓰는 작가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을 덧붙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나병과 문학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작가 홍성원은 “작가적인 양심을 가지고 나문학을 쓴다면 나환자 자신이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깊이 알았느냐, 우리도 놀랐다. 이런 정도의 작품을 써 놓고 나서야 나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풀 자신이 없다”라고 나문학 창작의 어려움을 말하였다.³⁴⁾ 이 말인즉슨 독자와 작가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 어떻게 나환자들을 공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적 접근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당신들의 천국』이 비록 역사·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환자들의 근원적인 문제 접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가의 고민은 ‘소설 속 소설’이란 장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어차피 작가가 한센병을 앓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을 오롯이 전달할 수 없다면 아예 자신이 갖고 있는 허구라는 방법을 이용해 역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허구라는 방법을 이용해 사실을 보여주는 아이러니를 추구한다. 소설 속 소설인 한민의 〈귀향〉은 장르상 허구에 속하지만 그것을 읽은 이상욱이 흠칫 놀라는 장면을 통해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더 나아가 『당신들의 천국』이 소설이란 장르에도 불구하고 이규태의 논픽션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

34) 한순미, 「나환의 기억과 서사적 욕망: 맥락과 정후」, 『국어국문학』 155집, 2010, 359면.

들이 허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청준의 창작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한센인들의 삶을 되도록 사실에 근접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민의 원고가 소설 속 독자인 조원장과 상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되느냐란 점이다. 우선 우리는 한민의 원고를 대하는 외부인의 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향」은 매번 출판사로부터 퇴짜 당하는데 어느 때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돌려받기 일쑤다. 결국 한민은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 없애버린 후 자살하고 만다. 조원장과 상옥이 읽은 것은 출판사로부터 되돌아온, 수신인이 없어 곧 불태워버려질 원고몽치이다. 「귀향」은 이 소설을 쓴 작가에게마저 부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글이다. 특히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반환되었다는 대목은 내용과는 무관하게 ‘한센인’이 사는 곳에서 배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당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한센인들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는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려는 독자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한센인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작가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설 속 소설이란 장르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숨은 속뜻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본고가 주의깊게 살펴본 것은 작가가 이러한 조건을 오히려 자신만의 서술 전략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오히려 소설이 허구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그 속에서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 바는 독자들이 이 내용의 진실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삽입서사는 소설 속 작중인물들의 내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논픽션 장르와는 달리 소설의 구조적 측면인 독특한 창작기법을 동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청준은 ‘무엇을 쓰느냐’와 더불어 ‘누가 쓰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이규태의 「소록도의 반란」에 영향을 받은 이청준이 단순히 논픽션을 인용하였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기법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분석한 4편의 삽입서사는 인용한 대목의 일부를 변조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황장로의 사연) 텍스트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희미한 윤곽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거나(이상욱의 과거사연) 더 나아가 나문학과 작가의 관계(축구경기 시합) 및 <여류화가 그림 속 소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삽입서사들은 작품 속에서 인물, 주제를 보강하는 역할과 동시에 텍스트의 구조화에서 ‘빈틈’으로 작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중적 효과를 자아낸다.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논픽션과 소설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황장로 사연>이 이청준에 의해 ‘고의적 변조란 서사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요컨대 논픽션에 서술된 ‘병자년’은 서술의 흐름상 시간의 교란을 주는데 작가는 이점에 포착하여 오히려 세 번이나 연달아 강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서사전략방식을 보여준다. 작가는 황장로의 나이와 글에 제시된 육십갑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이를 개인사가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보이도록 유도한다. 즉, 황장로의 삽입서사는 지배자로부터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피해자가 냉혹하고 잔인한 가해자로 변모하는 내용인 만큼 반란을 꿈꾸는 한센인들을 역동시킬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장에서는 소설에 직접적으로 서술되지는 않았으나 읽는 독자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비지정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신들의 천국』의 삽입서사에는 「소록도의 반란」에 주로 등장하는 ‘소녀’와는 달리 ‘소년’이 중점적으로 그

려진다. 「소록도의 반란」에서 리자 자매와 다른 아이들의 갈등 요소의 핵심은 어머니가 ‘흑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천국』의 삽입 서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등장인물의 갈등요소는 분명 ‘어머니’란 비지정 요소가 존재한다. 〈황장로 사연〉과 〈귀향〉에서는 각각 황소년의 어머니 및 아낙 여성, 술집 색시, 상옥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그녀들은 피해자이면서 때로는 가해자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약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작가는 소설의 서술에서 선택되지 않은 ‘비지정 요소’를 통해 오히려 이 소설에서 가장 약자는 표면에 드러나기보다 마치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 전달 형식이 아닌 ‘착란의 전략’을 구사하는 작가의 실험적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한센인들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작가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서사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당신들의 천국』의 삽입서사 〈그림 속 소녀〉와 〈축구 경기 시합〉, 그리고 〈귀향〉은 관객 혹은 독자들이 누구의 시선에서 사건의 주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가에 대해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소설의 삽입서사는 작가가 독자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읽은 일련의 과정들을 이청준 특유의 서사적 추론과 서사전략으로 구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용한 작품이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은 장르의 특성상 사실이라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를 착란의 전략으로 구사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령 〈황장로의 사연〉은 논픽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규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독자인 이청준의 의식 속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따라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황장로의 나이 추정에 관해서는 사실과 미일치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히 개인사가 아닌 한 집단의 신화로 거듭날 수 있음을 그려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자들

은 사연 내용 그 자체보다 사연을 통해 나환자들을 추동하는 힘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소설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황장로의 이야기’가 ‘신화’이며 모두의 이야기란 대목에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다. 한편 〈이상욱의 과거 사연〉은 사회의 소외자들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 아닌 서사구조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독특한 전략이다. 최종적으로 〈그림 속 소녀〉와 〈축구 경기 시합〉은 나환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청준이 나환자들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겪은 작가로서의 고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청준은 『당신들의 천국』이 당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정치와 권력 메커니즘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 외에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심층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삽입서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통상적으로 삽입서사의 경우 비유적이고 일화에 불과하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삽입서사마저도 작가의 트릭을 숨겨두어 꼼꼼하게 읽는 독자라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이 소설이 심층적이면서도 다채롭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셋째, 본 연구자는 이청준의 선행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은폐시킴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이청준의 창작기법이 있음을 분석한 바 있는데 『당신들의 천국』 또한 그러함을 살펴볼 수 있다.

아쉽게도 본고는 『당신들의 천국』 가운데 극히 일부인 삽입서사만을 집약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삽입서사가 제대로 분석된다면 기존 『당신들의 천국』에 관한 연구사에서 간과되어온 측면을 보강하여 해석의 외연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이규태, 「소록도의 반란」, 《사상계》, 1966.

2. 논문 및 단행본

- 김윤식, 「미백(米帛)의 사상 또는 이청준의 글쓰기의 기원에 대하여」,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19면.
김현,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 권오룡 엮음,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232면.
로지 책순,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8면.
마희정,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서사구조분석」, 『현대소설연구』 21호, 현대소설연구학회, 2004.
볼프강 이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차봉희 엮음,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236면.
서영채, 「과잉윤리와 물윤리 사이의 문학: 이청준의 ‘참기름 사건’과 『당신들의 천국』」, 『한국근대문학연구』 18집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7.
송기섭, 「서사물에서 작중인물의 정체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7. 189면.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우찬제, 「힘의 정치학과 타자의 윤리학」,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2000.
이미영, 『당신들의 천국』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이소연, 「괴물-되기의 서사 실험」,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4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이청준, 『인간인 2』, 열림원, 1999. 125면.
_____, 「저 숲을 영원히 볼 수는 없다-이청준 병상 일기」, 『문학과 사회』 제 23집, 문학과 지성사, 2010. 402면.
이현영, 『이청준 소설의 서사구조와 전략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18. 109~112면 일부 요약.
임환모, 「이청준 소설의 알레고리적 욕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정미숙, 「이청준 소설의 ‘정동’ 연구」, 『비평과 이론』 제27권 1호, 2022.

주지영, 「초점화자의 다변화에 따른 노동, 연대, 환대의 윤리」, 『한국문예창작』 제17권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8.

한순미, 「나환의 기억과 서사적 욕망: 맥락과 징후」, 『국어국문학』 155집, 2010, 359면.

_____, 「분홍빛 목소리」, 『한국민족문화』 6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ategy Appeared in
Lee Chung-jun's 『Your Heaven』
—Focusing on Insertion Narrative

Lee, Hyon Yo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creative technique of Lee Chung-jun through the hidden inner meaning behind it by examining the main inserted narratives in 『Your Heaven』. In the process of analysis, this study was able to examine the unique worldview of the author by utilizing his own creative techniques in the process, rather than simply citing non-fiction by Lee Chung-jun, who was influenced by Lee Gyu-tae's 『Rebellion of Sorokdo Island』.

Key words: Lee Chung-jun, Your Heaven, Rebellion of Sorokdo Island,
Narrative Strategy, Lee Gyu-tae

투 고 일: 2023년 5월 14일

심 사 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6월 21일